

산림녹화 숨은 이야기

산림녹화 숨은 이야기

초판 1쇄 발행 2025년 4월 25일

지은이 이경준

펴낸곳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주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도서주문 02-889-4424, 02-880-7995

홈페이지 www.snupress.com

페이스북 @snupress1947

인스타그램 @snupress

이메일 snubook@snu.ac.kr

출판등록 제15-3호

ISBN 978-89-521-3945-0 03520

© 이경준, 2025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산림녹화 숨은 이야기

| 이경준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머리말

한국은 해방 이후 참혹한 6·25전쟁과 극심한 가난을 극복한 뒤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발전, 민주화, 산림녹화를 모두 달성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예외적인 국가다.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는 대개 환경파괴를 동반한다. 그러나 한국은 전국의 산림이 황폐한 상황에서 반세기 만에 국토 녹화에 성공했다. 2006년 미국 지구정책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Lester R. Brown 소장은 『플랜 B 2.0: 위기의 지구 구하기』에서 한국의 산림녹화는 세계적인 성공 모델이며, 우리도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한국이 주었다고 극찬했다.

이 책은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녹화 과정에 담긴 숨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산림녹화는 정부의 장기적인 녹화정책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루어 낸 결과다. 초기 이승만 정부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열악하여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몇몇 선각자가 헌신적으로 정부의 녹화사업을 도왔다. 대표적인 인물이 독립유공자 육동백 선생, 세계적인 임목육종학자 현신규 박사, 김영준 산림국장이다. 특히 현신규 박사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신품종을 만들어 주요 조림 수종으로 심도록 했으며, 역대 대통령들의 찬사를 받은 인물이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뿐만 아니라 산림녹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장기적인 녹화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예산 배정과 유능한 관료 임명으로 치산치수의 초석을 쌓았다. 특히 박 대통령은 농림부 소속이었던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여 산림녹화에 지방행정 조직과 새마을운동 조직을 활용했으며,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경북 영일지구 사방사업과 화전민 정리를 말끔하게 마무리하면서 많은 일화를 남겼다.

박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현옥 내무장관은 특유의 리더십으로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의 초기 정착에 크게 공헌했으며, 책임 행정의 대명사로 알려진 ‘검목제도’를 도입하여 산에 심은 나무의 활착률을 높였다. 손수의 산림청장은 6년 동안 재임한 최장수 청장으로서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6년 만에 조기 완성하는 기적을 만들었으며,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조림, 사방, 연료림 조성, 화전 정리를 차질 없이 완성하면서 많은 숨은 이야기를 남겼다.

필자는 서울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로 재임한 기간과 지난 9년간 ‘산림녹화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다. 특히 필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육동백 독립유공자, 김영준 산림국장, 현신규 서울대 교수, 김현옥 내무부장관, 손수의 산림청장, 김연표 산림청 차장, 박승걸 밤나무 연구관, 동훈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경석 육군 장군, 민경식 제헌국회의원 유가족, 홍성각 건국대 교수(학술원 회원), 성운경 음성군 사곡리 산림계장 등을 면담했다.

이 책은 필자가 위에 언급한 공로자들을 직접 만나서 수집한 숨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꾸밈없이 작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사건과 연대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확인했으며, 모든 통계자료는 문헌을 통해 검증한 내용이다. 여기 소개한 이야기는 비록 정사(正史)는 아니지만 그 당

시 사회상과 국토 녹화에 얽힌 애환을 보여 주고 있으며, 산림녹화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어떤 인물들에 의해 완성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참혹한 전쟁의 후유증과 배고픔을 극복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서 국토 녹화에 헌신했는지를 이 책을 통해 지금 젊은 세대가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빛을 보게 되었다. 자료 사진을 제공해 주신 산림청 홍보담당실, 임업신문사,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해 일부 관련 자료와 사진의 수집을 도와주신 산림녹화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들과 모든 사진을 포토샵으로 말끔히 수정해 준 필자의 내자 안명희 씨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3월

이경준

차례

1부

건국과 역경의 시기



1. 최초의 식목일 행사 • 13
2. 산에 칩을 심어라: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 • 19
3. 학생독립운동의 효시 육동백 선생의 산림녹화 업적 • 25
4. 정조식재를 정착시킨 김영준 산림국장 • 32
5. 리기테다소나무: 한국 원조 식감안을 부결시키다 • 38
6. 현신규 박사와 역대 대통령 • 45

2부

산림녹화의 기반 조성



7. 국토녹화촉진 임시조치법:
병역미필자에게 애국의 기회를 주다 • 53
8. 민경식 제헌국회의원의 포플러 사랑 • 59
9. 지리산 도별 사건: 70명을 감옥에 넣은 극약처방 • 69
10. 저 푸른 숲을 몽땅 가져가고 싶어! • 75
11. 장경석 장군, 민주 군대의 나무 사랑 • 82
12. 공업입국과 홍릉 숲의 성쇠 • 90
13. 밤나무 조림: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다 • 96

3부

본격적인 산림녹화



14. 산림청 내무부 이관: 치산녹화의 새로운 이정표 • 105
15.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민둥산을 모두 없앤 쾌거 • 111
16. 김현옥 내무부장관: 입산 금지와 낙엽채취 금지 • 117
17. 최장수 산림청장 손수익: 500시간의 헬기 탑승 기록 • 123
18.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 김현옥 장관의 검목제도 • 129
19. 황폐지 복구: 세계를 놀라게 한 사망사업 • 136
20. 화전정리사업: 화전민을 역사 속으로 • 144
21. 그린벨트 제도: 도시 주변의 산을 보존하다 • 151
22. 대통령의 하사금: 산림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다 • 157
23. 산림계: 산림녹화를 성공시킨 민초 조립의 주역 • 163
24. 지역공동체의 모범 사례: 충북 음성군 사곡리 산림계 • 172

4부

산림녹화 뒷이야기



25. 초지조성사업: 산림녹화와의 갈등이 해결되다 • 185
26. 적송(소나무) 망국론 • 191
27. 산림녹화의 일등 공신: 아까시나무 • 199
28. 후생사업의 정체와 박정희 대통령의 나무 사랑 • 209
29. 적폐 청산: 가이즈카향나무, 왕벚나무, 금송의 수난 • 217
30. 숲의 명예전당: 산림녹화 공로자를 헌정하다 • 224
31. 산림녹화의 파급효과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231

1부

건국과 역경의 시기



최초의 식목일 행사

식목일(植木日)은 애립 의식을 고취하고 국토를 미화하며 산림을 자원화 하기 위해 많은 국민이 함께 나무를 심는 날이다. 식목일 행사는 언제 어디에서 최초로 거행되었을까? 기록에 의하면 1594년 스페인의 몬도네도(Mondonedo)시에서 시장이 주관하여 나무를 심었으며,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 가고 있다. 이어서 1805년 스페인의 비야누에바(Villanueva)에서 한 신부에 의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근대식 식목일 행사가 거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네브래스카주에서 1872년 4월 10일 모턴(J. S. Morton)이 주창하여 제1회 식목일 행사가 거행되었는데, 당시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미국 최초의 식목일로 알려져 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오늘날 세계 50개국에서 식목일을 지정하고 있다.

한국의 식목일은 4월 5일이다. 한식(寒食)과 청명(淸明) 무렵으로 나무 심기에 적합한 시기다. 이 날짜는 옛 역사를 참조하여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 시대 한반도에서 당나라의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성취한 날짜가 문무왕 17년(677년) 2월 25일(음력)이다. 조선 시대 성종(成宗)이 세자와 문무백관과 함께 동대문 밖의 선농단(先農壇, 지금의 종암동)에서 풍년제를 지낸 후 임금이 몸소 땅을 갈아엮는 친경(親耕)을 실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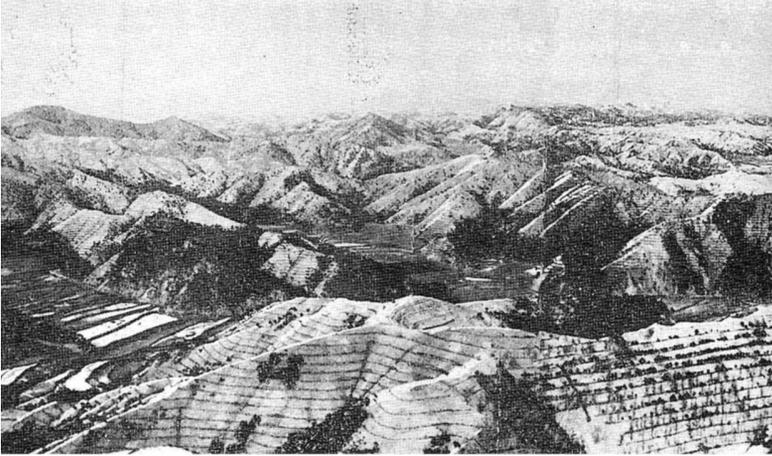


사진 1-1 1928년 경북 영주시 상망동에 끝없이 펼쳐진 헐벗은 산.

것이 성종 24년(1493년) 3월 10일(음력)이었으며, 양력으로 4월 5일에 해당한다.

국내 최초의 식목 행사는 1910년 4월 5일 조선 제27대 왕인 순종純宗(1907-1910년)이 친경제親耕祭에서 손수 밭을 갈고 나무를 심으면서 시행됐다. 일제강점기에는 4월 3일을 식목일로 정해 매년 시행했다.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후에는 1949년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제정하여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했다. 1960년 한때 식목일을 폐지하고 3월 15일을 ‘사방의 날’로 대체 지정하였으나, 식목일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어 1961년에 4월 5일을 식목일로 재지정했다. 이후 2005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하면서 식목일을 국가 기념일로 두되 공휴일에서 제외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이 출범하기 이전인 군정軍政 시절에도 식목일 행사는 해방 이듬해 1946년부터 거행되었는데, 이를 성사시킨 사람이 서울대학교 임학과 현신규玄信圭 교수다. 현 교수는 우리나라 제1호 임학박



사진 1-2 1960년대 초반 서울시 서대문구 진관동 북한산 산자락에 작은 소나무만 남아 있는 험벗은 산으로 진입로조차 없다.

사로서 1945년 해방 직전부터 수원농림전문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1945년 9월 미군이 남한에 진주할 때 맥아더 장군은 제24군단장 하지 J. R. Hodge 중장을 재조선미군사령관으로 임명하고 9월 9일부터 군정을 포고했다. 하지 중장은 일본인이 물러난 임업시험장의 재건을 위해 현 교수에게 임업시험장을 맡겼다. 현 교수가 일제강점기에 임업시험장에 7년간 관임관(判任官)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참조한 인사 발령이었다. 현 교수는 잠시 교수직을 내려놓고 홍릉에 와서, 당시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고 기다리던 다카기 고로쿠(高木五六) 보호과장에게 인계를 받았다. 다카기 과장은 솔잎혹파리를 처음 발견한 곤충학자로서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에 관한 귀한 연구자료를 전해 주고자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끝까지 남아 있었다. 현 교수는 그의 특별 배려에 감사한다는 글을 회고록에 남겼다.

현신규 교수는 황폐한 산림과 임산 연료 해결을 위한 군정청의 임



사진 1-3 반사막을 연상케 하는 1960년대 경북 금릉군의 황폐지.

업 분야 자문회의에서 하지 중장을 만났다. 이 회의에서 현 교수는 산림 복구를 위해 식목일 지정이 제일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지 중장은 당시 많은 급한 현안을 처리하느라 식목일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현 교수의 끈질긴 설득 끝에 이듬해부터 4월 5일 식목일 행사를 거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리하여 제1회 식목일 행사는 1948년 공식 건국보다 빠른 1946년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건국 후 처음 거행한 1949년 4월 5일 제4회 식목일 행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등이 참석했고, 서울 한남국민학교에서 거행되었다. 건국 후 첫 번째 행사인 만큼 정치적인 중요성도 있었던 것 같다. 아침부터 진눈깨비가 내리는 스산

* 한국임업신문사 엮음, 2007, 『대한민국 산, 세계는 기적이라 부른다』, 산림청.

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요로의 인사들, 서울 시민, 산림공무원 등 수백 명이 꼬리를 물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주요 인사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우리 3,000만 동포는 힘을 합쳐 황폐한 산림을 녹화하고, 정성 들여 가꾸어 하루 빨리 금수강산의 옛 모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 맹세합시다.”라고 연설했다.

김구^{金九} 선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산은 말 그대로 금수강산입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야망과 무력으로 침략하여 땀 흘려 지어 놓은 쌀을 약탈해 가고, 백두산의 울창한 원시림을 마구 벌채해서…… 이제 일본이 패망했으니 우리 백의민족인 동포끼리 산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구식^{金奎植} 박사는 “중국은 황해를 다스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산치수를 위하여 지도자들은 힘을 많이 경주해야 하며 또 전 국민이 협력해야 합니다. 식목일에만 법석대지 말고 긴 안목으로 보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모두가 정부 혹은 정당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국민이 해야 할 일만 강조하고 있다. 이때는 미래에 대한 정부의 정책 청사진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다. 식목일 행사가 정치행사였음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며, 갓 태어난 초대 정부의 한계점을 잘 보여 준다.

이날 학교 주변과 뒷산에는 사람들이 모여 힘들게 나무를 심었지만, 웃지 못할 광경도 연출되었다. 식목 행사장에는 천막을 쳐놓고 참석자들에게 점심시간에 나누어 줄 빵을 준비해 두었다. 그런데 12시가 되기 훨씬 전에 나무를 심던 시민들이 천막으로 모여들었다. 순식간에 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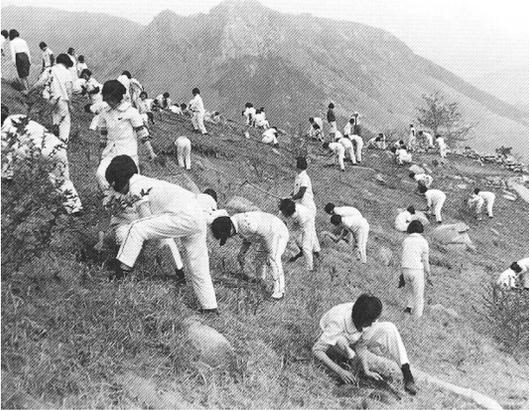


사진 1-4 1970년대
여고생 식목일 행사.

은 무너지고 수북이 쌓아 둔 뽕 봉지는 동이 났다. 이러한 무질서가 공무원들에게는 귀한 학습효과로 작용했던 것 같다. 그 후 나무 심는 날에는 밀가루나 옥수수를 질서정연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948년에는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농림부 명칭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소개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 군정을 거치면서 정부 조직도 당연히 미국 체제를 많이 따르게 되었다. 각 부 명칭 중에서 농무부(農務部) 역시 미국의 농무성을 본떠서 명명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그런데 윤길중(尹吉重) 의원(후에 국회의부의장 역임)이 뒤늦게 임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미 통과된 법안을 몰래 빼돌려 무務 자 대신 임(林)자로 바꾸어 적어 넣었다. 이런 거사(?)가 탄로 나지 않았던지, 무사히 농림부(農林部)로 명명되었다. 당시 국토의 65%(1952년 통계)를 차지하는 산림을 주관하는 부서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명문화되기는 했지만, 떠돌이 신세가 된 것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 한국임업신문사 엮음, 2007, 앞의 책.

산에 흙을 심어라: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해방 직후 공산주의 사상이 전국에 풍미하던 시절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6·25전쟁 당시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북한으로부터 국토를 지켰으며, 국제 정치에 밝아서 정전 후 불가능에 가까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성사시켜 북한의 지속적인 남침 야욕을 억제한 큰 공적을 세웠기에,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받아 마땅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위정자로서 임업이나 산림녹화에 관심이 많았다. 험벗은 산을 보면서 산림 복구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지만 당시는 여러모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거의 매년 의욕적인 산림녹화정책을 세우고 집행했다. 그 예로 산림보호임시조치법, 단기속성녹화조림계획, 연료림조성사업, 산지사방사업, 생울타리조성 계획, 상류수원함양사업, 민유림조성사업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각종 녹화사업 자체의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대도시 임산물 반입금지 조치와 석탄 증산 정책은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온 중요한 정책이었다.

녹화사업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은 것은 해방의 혼돈기와 6·25전쟁으로 극심한 가난, 연료 부족, 목재 부족에 시달린 초대 정부의 한계점



사진 2-1 1959년 이승만 대통령 경무대 내 전나무 기념식수. © 국가기록원

으로 보인다. 행정력, 예산, 양묘와 조림 기술, 국민의 협조 등 모든 것이 부족했던 반면, 대규모 권력형 도벌과 연료 채취를 위한 서민들의 남벌 등을 규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땅이 워낙 척박하고 건조해서 산에 어린 나무를 심으면 땅이 말라 죽었다. 나무를 꾸준히 심어도 민둥산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조림사업을 신뢰하기보다 사방사업에 더 관심을 가졌다.

1960년에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대신 3월 15일을 ‘사방의 날’로 정할 정도였다. 덕분에 사방 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사방 통계에 의하면 집권 12년(1948-1960년) 동안 사방 공사가 시급하게 필요한 요사방지(要砂防地) 총면적 68만 ha(산림 면적의 10%에 해당) 중에서 19만 ha에 사방공사를 실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화전(火田)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과 6·25전쟁 전후의 혼돈기를 거치면서 화전을 일구는 농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승만 정부 시절 약 3,000가구의 화전민을 정리했다. 필자가 직접 화전민촌을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은 이후 ‘화전정리사업’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소 나무에 대한 애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경무대 주변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전국에 나누어 준 기록이 남아 있다. 1954년 경무대 내 큰 느티나무 주변에 200여 그루의 묘목들이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조금 더 키워서 전국 경찰서에 4-5주씩 보냈다. 민가에 보급하면 땀감으로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 파출소 마당에 심고 잘 보호하라는 취지였다. 필자는 2023년 10월 11일 춘천시 신북파출소를 방문하여 “이승만 대통령 하사목”이라는 표석을 확인했는데, 지름이 80cm 정도 되는 큰 나무로 자라 있었다. 또 다른 대규모 묘목 분양 사례로, 이 대통령은 1960년 4월 9일 경무대에서 손수 가꾼 단풍나무 3만 그루를 각 기관을 통해 전국에 나눠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사진 2-2 1959년(사진 2-1)에 심은 전나무의 2023년 10월 모습.

이승만 대통령의 산림정책 중에는 시행착오도 있었다. 조금 엉뚱해 보이는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한다. 기독교 신자인 이 대통령은 서울 오류동에 살던 한 미국인 목사와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 목사는 미국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칩이 야산에 자라고 소가 이 칩덩굴을 잘 먹는 것에 흥미를 보였다. 그는 칩이 나무를 덮어 죽이기 때문에 숲에서는 골치 아픈 덩굴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이다. 그리하여 산에 칩을 심으면 사방사업에 도움이 되고 또한 가축의 사료로도 쓸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아마도 야산을 방목지 대신 녹사료(綠飼料)를 생산하는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1960년대에 서울 주변의 인왕산, 북한산, 관악산처럼 바위가 많이 노출된 산을 칩으로 덮으면 그럴듯하게



사진 2-3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이 평창군 화전민을 정리한 화전 대장.

녹색을 띠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런 생각은 충정 어린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부산 피난 정부 시절에 산림녹화를 위해 산에 칩을 심으라는 유시諭示를 내렸다. 이는 많은 임업인과 농부들의 원성을 샀으나, 그 원성이 제대로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당시 농림부 김영준 산림과장이 젊은 혈기에 극구 반대하다가 왕령포(王陵浦)이나 다름없는

대통령의 특별 훈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질타를 받았다. 당시 산림공무원들은 대통령의 훈령을 따르기 위해 이산에서 칩을 캐서 저 산에 심어 놓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웃지 못할 사태까지 발생했다. 지시를 거부했던 김영준 산림과장은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방첩대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기도 했다.

김영준(金榮俊) 선생은 1935년 수원고등농림학교(현 서울대학교 농생대 전신)에 입학하였으며, 1938년 졸업 후 서울영림서에 기수로 근무하다가 해방 후 군정청의 부름을 받아 농무부 광무국 생산사업과에서 근무했다. 석탄 채굴을 위한 갱목 생산을 주업으로 하던 곳이었다. 그는 산림국의 조림과장을 거쳐 1953년 산림국장으로 승진했으며, 후에 농림부장관을 역임했다. 현신규 박사는 회고록에서 5년 후배인 김영준 선생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수재급 청년으로 기술하고 있다.

부산 피난 시절이 끝나고 정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로 환



사진 2-4 춘천시 신북파출소에 남아 있는 이승만 대통령 하사목(느티나무)의 2023년 모습.

도한 이후에도 산에 칩을 심는 사업은 계속되었다. 김영준 국장은 이를 심히 우려했으나 별 방도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 왔다. 김영준 국장이 남대문 근처를 지나고 있을 때 한 젊은 청년이 지프차에서 급히 내리면서 인사를 했다. 그는 바로 이강석이었다.

이강석李康石은 이기봉(후에 국회의장과 부통령 역임)의 큰아들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강석을 양아들로 삼아 애지중지했다. 이강석은 서울고등학교를 다녔으며, 당시 학교 아이스하키 팀의 골키퍼를 맡아 활약했다. 필자는 서울중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겨울방학 때 창경원(지금의 창경궁) 연못에서 이강석이 출전하는 아이스하키 시합을 관람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를 응원하기 위해 그곳에 오셨다. 그날은 필자가 대통령을 처음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본 날이었다.

김영준 국장과 이강석은 식목일마다 대통령을 모시고 식수를 함께

했으므로 서로 잘 알고 있었다. 김영준 국장은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강석을 데리고 근처 다방으로 들어갔다. 김 국장은 이강석에게 칙의 문제점을 거의 한 시간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고 결국 이강석은 칙이 나무를 죽이고 산림을 망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아버지를 설득해 칙을 심으라는 훈령을 철회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이 약속은 지켜졌다. 수년간에 걸쳐 대통령의 훈령으로 지속되었던 산에 칙 심기 운동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필자가 현신규 박사의 전기를 쓸 당시 김영준 농림부 장관을 면담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 내용을 직접 글로 남기지 않았으며, 관련 문서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학생독립운동의 효시 육동백 선생의 산림녹화 업적

‘광주학생항일운동’은 1929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일어난 최초의 학생독립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보다 1년 앞선 시점에 육동백이 주도한 ‘수원고농학생사건’이 불발로 끝났지만 학생독립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육동백陸東百은 1908년 7월 20일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926년 수원고등농림학교 임과林科를 17세 최연소로 입학했다. 그는 1학년 1학기에 개교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아 학교를 놀라게 했으며, 신설된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항일 사상이 남달랐던 그는 동료 학생 10명과 건아단健牙團을 조직하여 단장이 되었고, 학교 주변에 야학을 세워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섰다. 졸업 후에 일제 치하에서 관리가 되지 말고 함경남도과 강원도의 고원지대에 대규모 개척 농장을 개설하자고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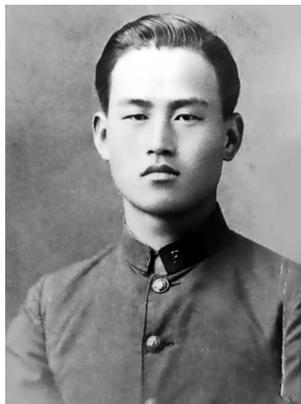


사진 3-1 1930년 육동백의 수원고등농림학교 시절.